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주도 추진, 5·18 정신 헌법 명문화”

이재명 광주·전남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광주군공항에서 광주를 AI 기업도시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했다. 또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추진 및 5·18 정신 헌법 명문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매듭짓고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셀 수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다. 앞으로도 죽비이자 화초리로써 우리 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라며 “그런 광주에 완전히 혁신적인 새 희망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광주 공약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인공지능연구원 및 AI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그린수소트램 시범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밸리 특화사업 조성 ▲5·18 정신 헌법 명문화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광주·전남 철도·공항·항만 트라이포트 추진 ▲2032년까지 호남 RE100 완성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및 마한 문화권 복원 등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3대 공동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군공항 이전에 역대 정부의 중점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군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 저 이재명이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 맞춰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광주역~전남대일대 스타트업 밸리 광주~전남 철도·공항 트라이포트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이곳에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의 연구·실증·생산·인증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빛그린산단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와 특화 R&D 캠퍼스 구축도 약속했다.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를 글로벌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와 농성동 종합버스터미널에 그린수소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공약으로는 우선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추진, 광주~화순 구간 도시철도 연장, 무안 항공정비 특화단지 지원, 여수 광양항 그린스마트 복합항만 조성 등을 통해 ‘트라이포트 추진’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2034년까지 호남 RE100을 완성하는 것과, 영산강 수변구역의 국가정원 조성 및 마한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정호 붕괴사고 피해자 대표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역제안에 이수용’ 양자토론 31일 가닥...4자는 다시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양자토론 ‘역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31일에 양자토론은 물론 4자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방송토론헤드라인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토론을

수용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1일 양자토론’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4자 토론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4자 토론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4자 토론 협상에 나가겠다”면서도 “31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는 일정의 4자 토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다자대결 이재명 35% 윤석열 34%

전국지표조사...안철수 10%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3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진행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1%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내에서 박빙을 이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자 응답자의 38%가 이 후보를, 37%가 윤 후보를 뽑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로, 지난 조사(6%포인트) 대비 좁혀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6.7%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세대교체’ ‘인적쇄신’ 잦아들 속 태풍 그치나

‘86 용퇴론’ 당내 진전 없어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잠식하고 떠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이 좀처럼 당내 반향을 이기지 못하면서 ‘잦아들 속 태풍’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86 퇴진론의 불을 댕겼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후속 주자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6 용퇴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교체론’은 설민심을 겨냥한 특단의 카드였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이재명 대선후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대 대전환’을 역설하며 인적쇄신 구상을 밝혔지만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표 인적쇄신인 당내 기득권 세력의 벽에 막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86 그룹’의 용퇴를 특징 짓는 것이 패착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위 친문과 86 그룹 등 현재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헌신에 방점을 두고 이 후보의 정치 교체론을 부상시켜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기득권 진영의 헌신 의지도 부족했고 혁신의 동력도 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전반기까지만 해도 중진 인사들의 퇴진론이 간간히 압박하던 초재선급 의원들의 목소리도 차츰 잠잠해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선 이후를 겨냥한 당내 계파들의 물 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86 용퇴론’은 당내 기득권 세력의 헌신을 모토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구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 같다”며 “이제와서 용퇴를 강제할 수도 없고 타이밍도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애초에 수십 명에 달하는 중진 그룹의 2선 후퇴 현실화는 어렵다고 보고 ‘홀로’ 불출마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86세대 대표급인 송 대표가 먼저 불출마를 공언한 것은 되짚어 보면 후속주자가 나오지 않아도 당 안팎의 세대교체론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가 이날 송 대표와 함께 당내 86세대 간판적인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시킨 것을 두고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우 의원이 송 대표와 함께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 후보가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떠우는 와중에 대표적 86인사를 선대위의 선장으로 앉힌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우 의원은 당내 최고 선거 전략통으로 꼽힌다”며 “이번 인사는 당내 인적쇄신론과는 떼어 놓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담자 납품/배송) 1톤 냉동담자 배송 수산물물류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

